

I·SEOUL·U

공원산책 4

조용한 하늘,
이야기로 가득한 공원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

공원 산책

10/15



오전 10시 30분
하늘계단 입구

신/동/교

(주)CA조경기술사사무소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big or small 빅바이스물



公園策



공원규모 총 면적 191,400m²

조성기간 1999년 10월 ~ 2002년 5월

공원시설 탐방객안내소, 풍력발전기, 하늘을 담는 그릇, 웰빙황토길, 전망대, 하늘계단 등

공원특징 ■ 2002 월드컵과 새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서쪽에 위치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안정화하면서 조성된 대규모 환경 생태공원

■ 월드컵공원은 대표 공원인 평화의공원을 비롯해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의 5개 테마공원으로 조성

■ 연간 이용객 수는 약 980만명으로 어린이날이나 역사축제 기간 중에는 하루 약 20만명 이상 방문하고 있으며, 서울 시민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세계적인 환경 생태 에너지 테마공원으로 거듭남

■ 하늘공원은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공사의 결과로 형성된 인공적인 땅으로, 이 척박한 땅에서 자연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공간임

설 계 자 ■ 하늘공원: CA조경기술사사무소

■ 월드컵공원: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위원회(김도경, 김영대, 안계동, 이인성, 진양교, 최정권), 기본계획 협력업체(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오이코스)

공원개요



과정 공원조성

- 1978년 쓰레기를 매립하기 전, 난지도는 땅콩과 수수를 재배하던 밭이 있던 평지였는데, 낮은 땅이었기 때문에 홍수 때면 집이 물에 잠기는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소풍장소나 청춘남녀의 데이트 코스로 사랑 받았으며 영화촬영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던 아름다운 섬이었음
-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로 만들어진 2개의 거대한 산과 넓은 면적의 평매립지, 주변 갯강 그리고 한강둔치 위에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공간이 만들어짐
- 공원 조성계획도 상호공존 및 공생을 주개념으로 당시 환경의 화두였던 “지속가능한 개발”을 반영하여 자연과 인간문화의 공존, 환경보전과 이용의 공생적 관계 구축 그리고 자연환경과 인공구조물의 조화를 추구함
- 초기에는 80여만 평의 상암지구 새천년타운 조성과 한강 새모습 가꾸기 사업을 연계하여, 매립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의 5개의 대지를 밀레니엄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음
-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지역 환경의 정비와 버려진 땅 난지도를 친환경 공간으로 재생하여, 상암동 일대를 21세기 서울 서북부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반환경의 상징인 난지도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복원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월드컵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표적인 환경 생태 에너지 테마공원을 표방 함
- 공원기본계획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위계획인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의 조성은 개별사업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완성되는 방식으로 추진됨

- 우리나라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의 상징이었던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복원하는 것이 서울의 도시관리정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됨
- 하늘공원은 일상적인 공원 경관과 달리 건조하고 광활한 초지 경관을 체험할 수 있음. 초지로만 구성된 5만 여평의 지형은 평화의 공원에서 도시적이며 화려한 조경공간을 보고 올라온 이용자들에게 신선한 시각적 충격을 줌
-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 공사로 형성된 인공지반에서 자연이 어떻게 처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인식됨



의미 공원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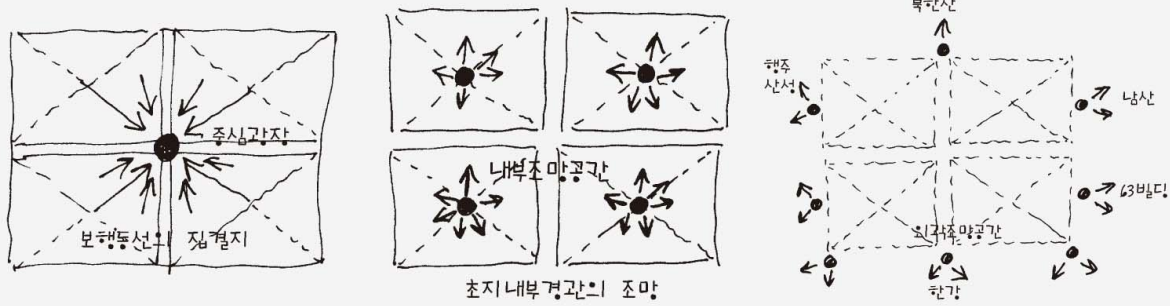
“ 난지도가 자리는 좋은데 쓰레기를 매립했던 곳이라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쓰레기 매립이 1992년 쯤 끝나고, 비슷한 시기에 월드컵 유치가 확정되었는데,
(활용 가능한) 땅은 있는데 쓰레기가 있으니 고민이 엄청 됐죠. 난지도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김포로 옮겨 갔는데, 현재 쌓아 놓은 쓰레기를 어떻게 할 꺼냐...
쌓여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두자고 했을 때 활용하는게 가능할까? ...
마침 시드니 올림픽(2000년)이 열렸는데,
쓰레기 매립지를 친환경공원으로 바꾸어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관련 리서치를 많이 했죠 ”

“ 당시 강홍빈 행정1부시장이 저, 최정권, 김도경, 김영대, 안계동 6명을 모아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위원회를 조직했어요.
함께 마스터플랜을 그리도록 합동사무실을 차린 거죠.
그때 대부분 평화의 공원에 관심이 많았고 하늘공원, 노을공원은 관심이 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려 볼테니 내게 맡겨’라고 하니 흔쾌히 받아들여져서 혼자 그리게 됐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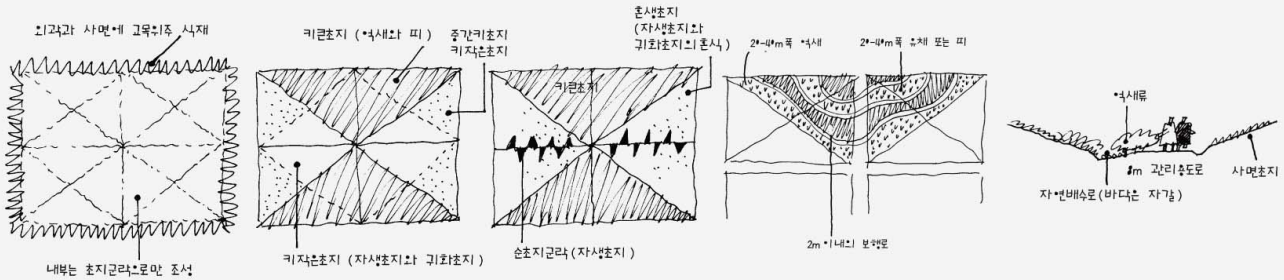


신/앙/교

(주)CA조경기술사사무소



초지 내부 공간의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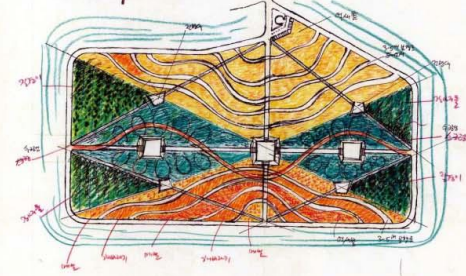
“ (답사를 위해) 버스를 타고 쓰레기 매립지 정상에 내렸어요.
 그때 신기했던게 피라미드들이 있는 거였죠.
 가장자리는 낮고 가운데가 5-6m 높은 4개의 피라미드가 있더라고요.
 피라미드를 왜 만들었는지 알고 보니, 토목공사업자들이 비가 오면
 빨리 물이 빠지게끔 물이 고이지 않게 구배를 준거예요.
 기본적인 지반공사를 편평하게 하지 않고, 물을 빨리
 배수시키기 위해서 살짝 피라미드 4개를 만들어
 놓은 거지. ... 우리는 피라미드 구조를 은유적인 산업유산으로 보고
 그대로 남기기로 결정했어요. 수직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초지를 조성하여
 경사면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
 초지가 놓여지면 어렵겠게나마
 피라미드가 읽힐 것이고, 거기에 공사를 위해 만든 길도
 그대로 활용하면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길들이, 이런 피라미드가 왜 여기에
 존재했어야 되는가’ 를 묻게 될 것 같더라고 ”

“ 비가 오면 빗물이 쓰레기 사이를 타고 흘러 침출수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토양, 지하수, 한강까지도 오염시키는 가장 큰 문제여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지요. ... 쓰레기 위에 멤브레인이라는 토목비닐시트로 전부 덮었어요.
 덮으면 비가와도 쓰레기는 내려가지 못하는 거지. 그래도 침출수는 시트를 타고
 바깥으로 흘러요. 그러면 밑에서 우수는 따로 잡아서 정수처리해서 한강으로 보내요.
 또 쓰레기 자체적으로 물이 생기는 것은 따로 안에서 침출수 여과공(배출을 위한 구멍)을
 설치해서 오수정화처리시설로 보내 2급수 이상으로 정수해서 내보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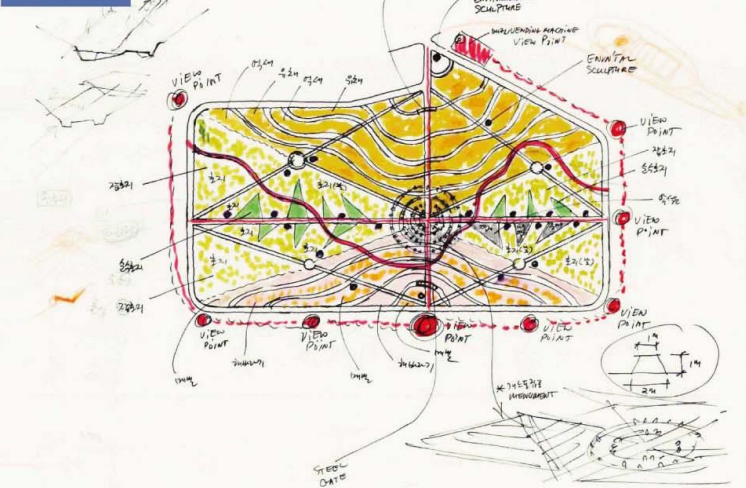


스케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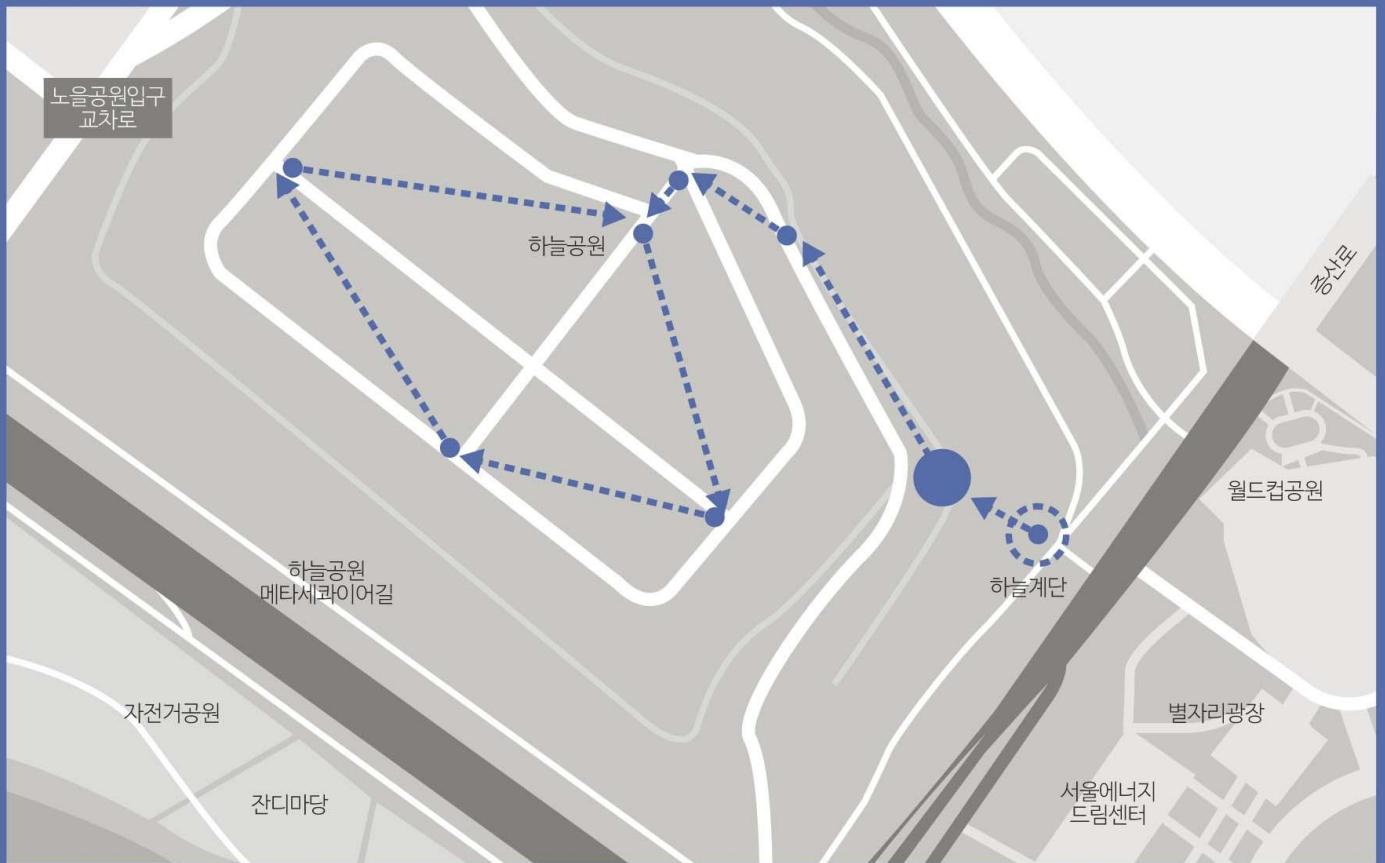
DESIGN THEME
초원공간 / 미학의 공간



스케치2







출발지점(하늘계단) ● 주요거점 ●---▶ 산책코스

09/24 (±)

{공원산책1}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에서 만나는 한강
한강에서 느끼는 서울

최원만 대표 | 노환기 대표
신화건설 | (주)조경설계비온드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까지
여의나루역 2번 출구
계단광장

10/01 (±)

{공원산책2}
경의선숲길공원

마포에 흐르는 녹색 동맥,
그 부분과 전체

안계동 대표
(주)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까지
홍대입구역 3번 출구

10/08 (±)

{공원산책3}
서서울호수공원

소리를 담은 호수
예술을 담은 공원

최신현 대표
(주)씨토포스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까지
서서울호수공원 입구광장

10/15 (±)

{공원산책4}
하늘공원(월드컵 공원)

노을과 바람,
하늘을 품은 공원

진양교 대표
(주)CA조경기술사사무소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까지
난지주차장1
하늘공원 입구

10/22 (±)

{공원산책5}
선유도공원

한강이 들려주고
사람이 기록한 이야기

정영선 대표
(주)조경설계 서안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까지
세브일레브
양화무궁화점 앞

*공원산책5는
정우진 소장님이 함께 걷습니다

{MEMO}